

6~7월 차창 밀고 쏟아지는 알궂은 밤꽃 향기의 비밀

밤나무 이야기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동시에 내 고장 한반도의 6·7월은 밤꽃 향기가 진동하는 계절이다. 어질하고 느끼하고 비릿한 밤꽃향! 고속도로를 뱅뱅 달려도 멀리 밤나무골에서 그 향기가 차창을 밀고 쏟아져 들어온다. 그런데 밤꽃의 향기는 맡을 때마다 느끼는 바이지만, 참으로 독특하다. 꽃향기라면 당연히 달콤하고 감미로우려 할 텐데, 비릿한 밤꽃향기는 기본 좋은 냄새가 아니다. 밤꽃향이 후각을 휘저으면 일행 중 한 명은 반드시 한마디 한다.

"이성과 거시기 하러거든 밤꽃 숲으로 가면 이루어진다."

라일락은 감미롭고도 낭만적인 향이었고, 장미는 청춘남녀의 춘심(春心)을 발동시키는 향기를 풍긴다. 여성을 유혹하는 밤꽃 향기에는 어떤 성분이 있을까? 옛날에는 밤꽃이 필 무렵이면 부녀자들이 외출을 삼갔다. 과부들은 이때 잠을 이루지 못했다. 무슨 성분이 때문에 그럴까? 그 이유는 밤꽃 향기의 성분이 정액 냄새의 성분과 같기 때문이다.

정액 성분은 스퍼미딘(spermidine)과 스퍼민(spermine)은 정액이란 뜻, 푸트레신(putrescine)과 카다베린 분자 등으로 이뤄져 있다. 네 분자는 모두 휘발성이 있어 대체로 냄새가 고약하다. 생선 비린내도 아민류 화합물 때문이다. 이런 성분은 질 내부 환경이 산성으로 이뤄져 있어 정자가 산성을 못 견뎌 죽게 되므로 이를 중화시켜 정액 속의 정자를 보호하는 완충제 역할을 한다. 자기 방어 본능의 역취인 셈이다.

밤꽃향에는 양기(陽氣)가 묻혀져 있다. 양기가 묻치면 비릿해진다. 단전호흡을 하는 수련자들은 밤꽃향을 맡으면 하단전으로 기운이 속 들어와 축적된다고 한다. 가장 영양가 있는 향이라는 것이다.

단학(丹學)에서는 3가지 보물인 삼보(三寶)를 강조한다. 하단전의 정(精), 중단전의 기(氣), 상단전의 신(神)이 바로 그것이다. 정액을 밖으로 누설하지 않고 축적 해 놓으면 정(精)이 강해지고, 기가 강해지면 상단전의 신(神)이 충만해진다는 것이다. 신이 충만하면 잠을 3~4시간만 자도 전혀 피곤하지 않다. (동의보감)에도 정기신(精氣神), 삼보를 보강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삼보가 충만하면 무병장수한다. 삼보의 첫 단추는 정을 보강하는 방법인데, 향기를 진동시키는 밤나무 아래에 1~2시간 앉아서 아늑한 밤꽃 향기를 흠뻑 맡는 것도 전통적인 양생법의 하나라고 전해진다.

밤나무는 참나무과(-科 Fagaceae)에 속하는 낙엽활엽교목이다. 6~7월에 암·수꽃이 잎겨드랑이에서 꼬리처럼 생긴 꽃이 핀다. 암꽃은 꽃차례의 아래쪽에 3송이씩 무리지어 핀다. 수꽃은 6장의 꽃덮이 조각과 10개 정도의 수술로 되어 있고, 암꽃은 6개의 방으로 나누어진 씨방과 6개의 암술대로 이루어져 있다. 열매는 9~10월에 견과(堅果.단단한 껍데기)와 꼭질에 싸여 한 개의 씨만이 들어 있는 나무 열매를 통틀어 이르는 말. 도토리, 밤, 은행, 호두 따위

로 익어 길이가 3cm 정도 되는 가시가 많이 난 밤송이가 되며, 그 속에 1~3개의 밤이 들어 있다.

밤나무의 재목은 물과 습기를 잘 견디므로 철도 침목, 가옥 토대, 토목 용재, 선박재, 북의 동체, 다리 건설 등에 쓰인다. 변재는 암황색, 심재는 황갈색으로 경계가 뚜렷하고 나이테도 분명하다. 재질이 강인하고 결이 곧아 잘 쪼개지는 성질이 있어 공작하기 쉽고, 가지는 말뚝으로 널리 쓰인다.

빠아프고 고생스러운 일을 다 겪어보았다는 뜻의 "밤송이 우영송이 다 껴어보았다"라는 속담이 있다. 가시가 있는 밤송이와 같기 모양으로 굽어서 찌르는 우영의 꽃송이에서 나온 말이다. 밤을 땅에 심으면 썩어 나와 꽤 자랄 때까지 밤껍질이 어린 나무 뿌리에 계속 붙어 있다. 그래서 밤나무를 근본(조상)을 잊지 않는 나무로 여겨 밤을 제상(祭床)에 올린다.

제사상에 올리는 다른 과일들도 이유가 있다. 감은 자식을 키우며 속이 상한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며 놓는다는 설이 있다. 열매를 한 번도 맺지 못한 밤나무를 꺾어 보면 속에 검은 심이 없으나 감이 열린 나무를 꺾어 보면 검은 심이 있다.

라일락은 감미롭고 낭만적 향기 풍기고

장미꽃 내음은 청춘남녀의 춘심 발동시켜

양기 묻친 밤꽃의 향기는 여심을 유혹해

대추는 암수 한몸인 나무다. 이 때문에 꽃이 핀 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열린다. 그 수도 많아 후손의 번창함을 뜻한다. 또한 대추씨는 통 씨로 절개와 순수한 혈통을 의미해 제사상에는 빠지지 않고 오르는 과일이다. 배는 노란색 껍질을 가져 황인종을 뜻한다. 오형에서 황색은 우주의 중심을 나타내고 이는 민족의 금지를 나타낸다. 배의 흰색 속살은 '백의민족'을 뜻하며 동시에 순수함과 밝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올린다는 설이 있다.

한편, 제사상에 못 올리는 음식도 있다. 복숭아는 귀신을 쫓는다고 한다. 제사에 올리면 조상님이 왔다가 혼비백산해 돌아간다고 한다. 또한 진한 향이 나는 마늘, 파, 고추, 부추, 미나리 등의 음식도 제물로 쓰지 않는다. 조상이 향에 취해 정신이 맑지 못할까 염려해서다. 천하다고 여기는 음식도 제물로 쓰지 않는다. 끝자가 '치'로 끝나는 갈치, 참치, 꽂치, 멸치 등이 이에 속한다. 등이 푸른 색을 띠는 고등어도 천하다고 생각해 제상에 올리지 않는다.

그나저나 굶은 송충이 같은, 비릿한 향기를 뿜는 밤꽃에서, 어찌 탕글탱글하고 달작지근한 밤이 열리는 것일까? 참 오묘하다. 빨발 같은 진흙탕에서 인물이 피는 것도 오묘하다.



이우상 <소설가·동국대 문학과 겸임교수>



찬 덕 불 교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책임 시공합니다.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강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흥은사

윤장대 인등

용우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고급형 위패

아름다운 등

팔각점등등가등

만월영가등

공 단 등

오색공단등

만 월 등

중 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소모: 98원/1kwh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왕2리 261-6 / 전화: 031)792-6288, 794-4055 / 팩스: 031)794-6288
 www.chanduk.com 취급품목: 연등·주름등·전선시공·영구위패·LED인등·LED전구

LED 전구: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시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립니다